

보도시점 : 2025. 12. 15.(월) 11:00 이후(12. 16.(화) 조간) / 배포 : 2025. 12. 15.(월)

서울~부산, 강릉~부산, KTX-이음으로 3시간대에 잇는다

- KTX-이음 중앙선 18회·동해선 6회 운행으로 이용객 편의 크게 향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12월 30일(화)부터 중앙선(청량리~부전)과 동해선(강릉~부전)에 KTX-이음(시속 260km)을 본격 투입하여, 중부·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.(예매 개시: 12.16(화))
- 중앙선은 최근 안동~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, 청량리~부전 구간 KTX-이음 운행 시간을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하고, 차량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(상·하3회, 주중·주말)에서 18회(상·하 9회, 주말 기준)로 운행을 확대한다.
- 동해선도 포항~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, KTX-이음을 총 6회(상·하 3회) 신규 투입한다.

【 중앙선 】

- 중앙선('24년 12월 복선전철 완전 개통)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, 이번 안동~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인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,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.
- 우선,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. 청량리~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 → 18회로 3배 증편되고, 청량리~안동 구간도 18회 → 20회로 확대되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.
- 소요시간 역시 줄어든다. 청량리~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-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(청량리~태화강 3시간 12분)에서 3시간 38분(청량리~태화강 2시간 54분)으로 단축된다.

- 아울러,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중앙선 KTX-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, 북울산, 남창, 기장, 신해운대,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,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·경북 등 중부내륙, 부산·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동해선 】

- '25년 1월 개통하여 현재 ITX-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(부산)~강릉 구간에도 향후 KTX-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.
- 이로써, KTX-이음 기준으로 부전~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, 기존 ITX-마음 운행 소요시간(5시간 4분) 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.
- 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('25.1~11월)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·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.
- 이번 KTX-이음 투입을 통해 부산·울산과 경북, 강원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,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-이음(청량리~강릉)도 총 4회 추가 투입되어, 지역 접근성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KTX-이음 신규 투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, 강원 지역과 부산·울산,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- “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철도국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철도운영과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임상준 (044-201-4631) 이은정 (044-201-3974)
< 공동 >	한국철도공사	책임자	처 장	이승복 (042-615-3956)
	여객마케팅처	담당자	부 장 차 장	김희윤 (042-615-3960) 김환철 (042-615-3967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국민께 보고드립니다
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



